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2년도 표어 ⊗

성령이여 교통케 하소서 (고후13:13)

⊗ 행동지침 ⊗

- 1. 내실있는 교회 되어 바른 신앙, 바른 신학, 바른생활을 실천한다.
- 2. 성숙한 교회 되어 이웃과 세계교회를 섬기며 화평과 연합을 도모한다.
- 3. 책임있는 교회 되어 지역사회와 민족 앞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한다.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 (02) 558-1106 팩스: (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제22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

-신앙과 애국을 주제로 9월2일(월) 개강-

우리교회가 한국 교회의 갱신을 위해 매년 전후반기 각 10주씩 매주 월요일마다 개최하고 있는 목회자 세미나가 22학기 일정을 시작한다.

오는 9월2일(월) 개강하며 특별히 금번 목회자 신학세미나는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두고 신앙과 애국을 주제로 삼아 10주간의 일정을 시작하게 된다. 1교시는 본 교회 이종윤 목사의 시편강의를 지난 학기에 이어 계속하며 2교시는 10개의 주제별로 외부강사를

초청하여 진행한다. 그리고 10주간의 강의 중 3회는 금번 대통령선거에 입후보하는 당의 후보자들을 초청하여 신앙과 애국을 주제로 강의를 듣고 정책토론을 하게된다.

금번 22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도 은혜 가운데 진행되도록 기도로 준비한다. 22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의 시간표는 다음과 같다.

	2교시(3:50 - 5:20)		강사
	9월2일	국가와 교회	
1교시 (2:00 - 3:30)	9월9일	복지사회와 교회	빅중삼 숭실대 교수
	9월16일	한국 교회사에 나타난 애국	민경배 서울 장신대 총장
시편연구	9월23일	신약에 나타난 애국	박수암 장신대 교수
이종윤 목사 (서울교회)	9월30일	신앙과 애국	이회창 한나라당 대선후보
	10월 7일	신앙과 애국	노무현 민주당 대선후보(미정)
	10월14일	신앙과 애국	제3당 후보
	10월21일	남북통일과 교회의 역할	김동길 전 연세대 교수
	10월28일	신세대의 애국심과 신앙교육	박성수 전 전주대 총장
	11월 4일	구약에 나타난 애국	박준서 연세대 교수

아시아로잔대회 준비 박차

(The 5th Asia Church Leaders Conference On Evangelism)

-참가국과 각 선교·전도회 연결-

아시아 18개국 교계지도자 120여명이 참가하여 8월 26일부터 29일까지 서울교회에서 'Partnership in the Gospel'이라는 주제 아래 아시아 교회들이 당면한 문제들을 확인하고 도전하며 복음의 진보를 위해 젊은 지도자들을 발굴·격려하고 아시아 교계지도자들이 함께 참여할 것을 제창하는 제5차 아시아 로잔대회가 3주 앞으로 다가왔다.

교회는 ALCOE V 준비위원회를 조직하고 민박 가정을 선정하고 후원현금을 모금하며 대회기간 중 사용할 휴게시설을 준비하는 등 준비에 여념이 없으며 다음 주일(8/11)까지 작성된 현금을 마감하고 민박가정 배치를 완료한 후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며 대회를 치를 웨스트민스터 홀과 휴게실, 만나홀, 컴퓨터실 등의 시설을 최종 점검하게 된다.

준비위원회는 1차로 확정된 18개국과 각 선교회, 전도회 및 대학·청년부를 연결하여 참가국과 참가자들을 위한 기도결연을 하기로 결정하고 각 부서의 기도후원을 요청하고 오는 8/9, 8/16, 8/23 금요일기도회에 운영위원 및 실행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아시아로잔대회를 위한 기도회를 가진다. (자세한 내용 3면 참조)

한편 지난 월요일(7/29) 만나홀에서 개최된 ALCOE V 준비모임에는 교계의 선교관계자들과 보도기관에서 60여명이 참석하여 로잔 국제위원회 보고와 ALCOE V에 관한 설명을 들으며 참가신청을 하며 깊은 관심을 보였다.

8월 행사 계획

- 8. 4(주) : 새가족영양회, 교육위원회
- 8. 6(화) : 단기선교팀 파송 (8.6~8.13 몽골), 농어촌 전도대 파송(8.6~8.9 충남예산목양교회)
- 8.11(주) : 전도위원회
- 8.14(수) : 장로수련회(8.14~8.16 23시단)
- 8.18(주) : 교구위원회, 교구찬양(5교구), 흑인영가단 찬양
- 8.21(수) : 학습·세례식
- 8.25(주) : 찬양위원회, 구제현금
- 8.26(월) : 제5차 아시아 로잔대회 (The 5th Asia Church Leaders Conference On Evangelism) 8.26~8.29

단기선교팀 및 농촌전도단 파송

-8월4일(주) 찬양예배시-

단기 선교팀과 농촌전도단이 8월4일(주) 찬양예배시 함께 파송을 받는다.

단기 선교팀은 몽골로 파송을 받아 8일간 현지 선교사의 사역을 보조하며 선교활동을 펼치게 되며 농촌전도단은 충남 예산 목양교회로 파송받아 4일간 여름성경학교와 전도, 교회보수 등의 활동을 하게된다. 단기선교팀과 농촌전도단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단기선교팀> 이규정 이태훈 이영희 이용자 김사무엘 이변생
곽숙 전운순 최소희 김영주 이남성 이양철 최형열 오환실 이자혁 최미아 김대형
최요섭 최 융 강민정 박윤정 박현주 최수정 오동은 하영인 인요셉 (26명)
<농촌전도단> 이성득 조대영 황선철 왕경래, 최중시, 민순구 윤찬오
강혜주, 권길자, 김규태, 김명숙, 김봉수, 김성임, 김영식, 김옥순, 김우숙, 김우영,
김정희, 김준운, 김진달, 노재균, 박경우, 박미혜, 박우찬, 박정섭, 박준희, 박현영,
백석훈, 서춘식, 신용식, 심상필, 양순임, 오광환, 오종래, 유수진, 윤숙희, 이계홍,
이동만, 이상호, 이승우, 이영숙, 이종돌, 인대진, 임경민, 임송자, 임희춘, 장양일,
전신일, 전원순, 정정숙, 조건영, 조남현, 조동환, 조선영, 조정식, 조종화, 조현정,
최광성, 최길옥, 최봉애, 최순옥, 최지혜, 최홍렬, 하인구, 홍재식 (65명)
이들의 출발은 8월 6일(화) 교회에서 한다.

교회 내 게시판 이용안내

5층부터 8층까지 각 층의 게시판은 교회학교·선교회·전도회·찬양대 등 전 부서의 행사 및 알림을 게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홍보물이 마구 붙어서 미관을 해치며 혼란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각 부서에서 게시판에 홍보물을 게시하려면 먼저 사무국에 자세한 내용과 부착 기간 등을 알리고 검인을 받기 바란다. 아름다운 교회당 관리는 우리모두의 숭선수범에서 시작된다.



▶ 지난주(7월28일)에 가진 들성경 제막식

이시아서 강해

새 하늘과 새 땅

(이사야 65장 17 - 25절)



이중운 목사

본문은 '주여 강림하소서'라는 하나님 백성의 기도(64장)와 '주여 잠잠치 마소서'라고 불평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응답입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상태가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지으신 후 그곳에 자기 백성을 두십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니니"(1절)는 창세기 1:1에서 사용된 동사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하늘과 땅이 멸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어 대치됩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18절),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을 창조하시어 자기 백성을 기쁨으로 삼으십니다.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계 21:2).

본래 있던 땅은 두루마리처럼 말려 올라가고 위로부터 새 하늘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천지가 새로워진 것을 말합니다. 이 복음에 참여한 자들은 말할 수 없이 큰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신약 시대는 구약 시대에 비해 크게 달라진 것입니다. 계시 방법도 다르고 속죄하는 제사도 없는 완전히 새로워진 시대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후 5:17).

구약 시대가 지나고 신약 시대가 도래한 것처럼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1. 거기에는 새로운 기쁨이 있을 것이다

(1) 모든 성도들과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기뻐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18절).

새 하늘과 새 땅을 받은 사람은 영원히 기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복음에 의하여 창조하신 새로운 것들은 신자들에게 영원한 기쁨의 제목이 됩니다.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13절).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사람은 기쁨이 넘치는 존재가 되며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 자입니다.

(2) 교회는 기쁨의 장소가 될 것이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18절).

교회는 기뻐할 뿐만 아니라 즐거움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생각만 해도 저절로 기뻐지는 것처럼 교회를 보면 저절로 즐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3) 교회의 변형은 하나님께 즐거움이 될 것이다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하나님의 백성은 이리 가운데 있는 양과 같지만 안전하고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리의 마음을 바꾸시기 때문입니다. 이리처럼 주님의 제자를 박해하던 바울이 사도 중 한 사람이 되었을 때 이리와 어린양이 함께 먹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변할 것입니다. 강탈하고 약탈을 일삼던 사람들이 정직하고 희생하는 존재로 변하게 됩니다.

"(19절).
하나님은 자기 종들의 변형을 즐거워하십니다.

(4) 기쁨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19절).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성도의 기쁨이 계속 되고 모든 눈물이 사라지게 됩니다.

2. 거기에는 새로운 삶이 있을 것이다

"거기는 날 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한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 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 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 받은 자리라"(20절).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이전처럼 병이나 칼에 의한 죽음은 없습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계 21:4).

죽음이 없을 때 슬픔도 사라지게 됩니다. 지상의 생이 짧으면 하늘나라가 질어질 것이니 성도에게는 불평이 없습니다. 주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어린 아이가 죽어도 다시 부활하여 영생할 것이므로 백 세에 죽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는 아무리 길게 살아도 만족을 얻지 못하니 불행합니다. 백 세를 산 사람도 저주를 받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성도로서 새 삶을 사는지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에는 성도의 새로운 삶이 영위됩니다.

3. 그들은 생의 위로를 새롭게 향유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21절).

전에는 건축한 집에 원수가 거하고 재배한 나무 열매는 원수가 먹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손의 수고가 축복을 받고 변영케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목격한 것을 얻을 것이고 정직하게 얻은 것은

안전히 보전될 것입니다. 또한 게으름의 양식이나 거짓을 먹을 먹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4. 그들 대신 새 세대가 일어나 이런 축복을 상속받고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와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23절).

손으로 일하는 것을 기뻐할 뿐 아니라 후손에게 만족스럽게 물려줄 것이므로 그 후손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호와와 복된 자의 자손이므로 선조로부터 복이 상속되기 때문입니다.

5. 하나님과 좋은 교제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24절).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가 아직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기도를 이루어주시며 그에 대한 확신과 징표를 주십니다. 신속한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은 그 기도가 참된 기도이거나 사람을 향한 기도거나 또는 사욕을 위한 기도이거나 믿음으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탕자가 집을 나갔을 때 그의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고대하며 날마다 문을 열고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마음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거듭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기도를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6. 이웃과 좋은 교제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25절).

하나님의 백성은 이리 가운데 있는 양과 같지만 안전하고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리의 마음을 바꾸시기 때문입니다. 이리처럼 주님의 제자를 박해하던 바울이 사도 중 한 사람이 되었을 때 이리와 어린양이 함께 먹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변할 것입니다. 강탈하고 약탈을 일삼던 사람들이 정직하고 희생하는 존재로 변하게 됩니다. 도둑질하던 이는 자기 손으로 선한 일을 하며 자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먹을 것까지 수확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은 사슴에 목일 것이고 뱀은 속박 당할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을 해하던 죄악이 사라짐을 말합니다.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겠다는 이 약속은 성산에서만 완전한 성취를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하늘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완전한 천국 시민으로 승리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The 5th Asia Church Leaders Conference On Evangelism ALCOE V 참가국과 각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 · 각 선교 · 전도회 연결 상황 (I)



싱가폴(Singapore)

참석인원: 2명

연결 현황: 필립 남선교회

620km² 면적의 말레이시아반도 남쪽 끝단의 큰 섬과 주변 다수의 섬으로 구성된 소규모 국가 통신과 교역의 전략적 요충지로 다인종 다언어 사회, 중국계 화교 77.7%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개인의 종교를 공공연히 주창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을 통해 인종 종교간의 조화를 이루고자 하고있으며 학교에서의 종교관련 교육은 폐지됨. 모든 종교는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중국계통의 종교가 52.4%로 절반을 차지하고 개혁신교 8%로 미미하다. 개혁신교의 성장률은 7%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가톨릭이 약 6%이다.

<기도제목>

1. 기독교인이 교육수준이 높은 계층에서 싱가포르 평균보다 2배 이상 상회하며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 저력을 주의 사역을 위해 감당하도록
2. 올바른 부의 사용을 위해
3. 복음 전도를 제한하는 법률에 맞서 당당하게 전도할 수 있도록
4. 인구의 30%가 기독교인이 되도록
5. 복음이 모든 종족에게 고루 전파 되도록



스리랑카(Sri Lanka)

참석인원: 2명

연결 현황: 안드레 남선교회

65,000km² 면적의 인도 남동쪽 80km 지점의 큰 섬나라 실론족 74% 타밀족 18.2%로 남방불교가 국교로 장려되고 있다. 타종교에 대한 자유가 보장되고있지만 소수 종교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다. 1988년 이후 반기독교적인 감정이 고조되어(식민지 시대의 영향)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을 색출하고 전세계에 불교 포교활동을 자극하고 있다. 기독교가 약 7.6%로 개혁신교회는 0.92%, 성장률은 4.4%이다.

<기도제목>

1. 종족간의 분쟁이 사라지고 평화가 오도록(불교도 실론족과

힌두교 타밀족간의 내전으로 25,000여명 사망, 70만 명이 상이 피난 또는 이주함)

2. 다시 성장하는 교회와 교회의 변화를 위하여(거듭나도록)
3. 영적 압박에 굴복하지 않도록(불교도와 힌두교도의 압박)
4. 선교사역이 원활하여지도록(비자 발급의 어려움 해결, 재정 확충 등)



네팔(Nepal)

참석인원: 6명

연결 현황: 베드로 남선교회

141,000km² 면적의 중국과 인도에 둘러 쌓인 히말라야 산맥의 국가로 세계 유일의 힌두교 왕국. 힌두교가 국가 종교로 1991년 이래 자신의 종교를 고백하고 따를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개종은 금지되어 있다. 힌두교 89%, 정령숭배와 불교가 영겨있는 혼합주의, 기독교는 0.58%로 미미하다. 그러나 개혁신교의 성장률이 13.5%를 보일 정도로 복음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기도제목>

1. 압박 속에서도 교회를 성장케 하신 주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도록
2. 정치적 안정을 통한 지속적인 복음전파가 이루어지도록
3. 네팔 현지교회들이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4. 후원기관의 설립을 통한 현지인 신앙지도자 양성도록
5. 선교단체들이 큰 역할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마카오(Macao)

참석인원: 4명

연결 현황: 바울 남선교회

16km² 면적의 중국 광둥성 해안에 위치한 홍콩 서쪽의 중국 특별행정 자치구역으로 중국인 93% 도박과 관광, 무역이 경제의 주체가 됨. 기독교 9.2%로(개혁신교 1.8%로 가톨릭의 영향이 강함) 성장률은 2.5%로 미약하다.

<기도제목>

1. 마카오 국민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도시란 뜻의 이름(마카오)에 적합한 나라가 되도록

2. 마카오 국민이 도박과 마약에서 벗어나도록
3. 선교사들의 사역을 위해



말레이시아(Malaysia)

참석인원: 4명

연결 현황: 엘리야 남선교회

330,000km²의 면적으로 아시아 본토와 보르네오 섬 북부 2개 지역으로 구성됨. 말레이족 52.5% 중국 화교 30% 회교권 국가로 회교도를 개종시키는 것은 불법이다. 정령을 숭배하는 오지 부족과 중국인을 회교도로 개종시키려는 노력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음 회교도 55% 개혁신교 5% 성장률 7.1%로 상당히 높다.

<기도제목>

1. 회교도들의 압력과 탄압에 쓰러지지 않도록(기독교인에 대한 압박, 차별, 관료들의 방해)
2. 말레이어 기독교 문서가 발간되도록
3. 예배에 말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일부 지방에서 기독교의 확산을 막기 위해 금지하고 있음)
4. 청년 사역이 열매맺도록



인도네시아(Indonesia)

참석인원: 5명

연결 현황: 모세 남선교회

1,920,000km² 면적의 섬나라로 말레이족이 94%를 차지하고 있다. 종교의 자유가 있으나 회교도는 회교의 수자적 우세(87%)와 정치적인 힘으로 특혜를 부여하고 기독교의 확산을 제한하고 공공생활에서의 기독교적 영향력을 축소하려고 하고 있어 공적인 복음 전도는 제재가 따른다. 현재 기독교 12.5%로 성장률은 4.7%이며 개혁신교회는 9.3%, 성장률은 4.6%이다.

<기도제목>

1. 교회를 성장시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2. 기독교에 대한 회교도의 도전에 승리하도록
3. 성숙한 영적 지도자의 육성을 위해
4. 각종 선교사역을 위해(문서 선교, 성경번역, 방송, 의료, 개발, 교육 등)

농촌전도대 출발을 앞두고

단장 왕경래 장로(11교구)



농촌전도대 파송은 올해로 9번째를 맞이하며 금년에는 충남 예산의 목양교회(담임목사: 인태권)에서 8월6일(화)부터 8월9일(금)까지 3박4일간 전도와 봉사활동을 펴게 된다.

축호 전도와 어린이 여름성경학교 개최 등으로 현지에서 복음을 전하며 저녁에는 동네잔치와 전도집회, 한방치료와 이·미용 등으로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전도대를 8개 분과로 조직을 하여 각 분과별로 업무를 담당하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능력있는 전도자가 되기 위해 4차에 걸쳐 전도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합심하여 드리는 통성기도로 무장을 하였다.

지도 교역자 이성득 목사는 전도대원들에게 불신영혼과 싸워 승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매일 새벽기도회에 참석하거나 하루 한끼 금식하는 양자택일의 실천사항을 선포하였다. 특별히 지난 25일(목)에는 전 대원이 참석하여 오후 7시부터 특강과 전도교육 및 기도회의 시간을 갖었다. 이 자리에서 이성준 목사는 다니엘이 바벨론에 비추어 영광의 빛처럼 전도대원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많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하여 세상을 비추는 지혜로운 전도자가 되라고 강의 하셨다.

이번 전도대 파송을 위하여 이미 3차례의 사전답사를 실시하였고, 이미 선발대가 현지에 도착하여 예배당 지붕 수리와 전기시설 공사로 구슬같은 땀을 흘리고 있다. 이제 농촌 전도대는 8월6일부터 현지에 파송되어 한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맑은 사명을 믿음과 기도로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성도님들의 뜨거운 기도를 부탁 드린다.



몽골 단기 선교 출발을 앞두고

단장 김시무얼장로(11교구)

샌 베키노?(안녕하세요?)

7박8일의 단기 선교를 위해 지난 4월 18일부터 16주 동안 몽골을 가슴에 품고 훈련을 받아, 이제 단기선교사 26명이 출발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우선 지면을 통하여 감사 드립니다.

독립된 지 81년 된 몽골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이미 오래 전부터 역사 속에 나타나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 나라에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가려고 합니다.

아직도 외국인들의 직접 선교가 허락되지 않고, 교회 내에서만 집회를 허락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번 몽골 단기 선교는 작년 태국 선교에 이어 우리 교회의 세 기둥 중 하나인 선교의 기둥을 세우는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민족 복음화와 세계선교의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겠습니다.

타문화권을 이해하고, 바른 선교관 정립과 함께 선교에 헌신할 주의 일꾼들을 발굴·양성하며, 현지 선교사의 사역을 지원할 목적으로 진행하여 왔습니다. 특히 이번 몽골 단기선교는 성경학교와 의료 봉사, 이·미용 봉사 활동으로 국내 농촌 전도대의 전도 활동과 같은 형식으로 하되 그 지역을 세계로 조금 넓힌 것입니다. 몽골의 아멘교회와 갈보리교회에서 주로 활동할 것입니다. 평균 1,500m의 높은 고지와 하루에 사계절이 다 있다는 어려운 상황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 우리를 위해 끊임없는 기도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우리교회가 얼마 후엔 몽골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몽골 서울교회가 세워 지길 바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사명으로 알고, 우리를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사 받아주시길 기도드리며, 잘 다녀오겠습니다. 바이를따(감사합니다.)

성령님이 고통하신 수련회를 돌아보며

장년부 수련회를 다녀와서 이은희 권사(4교구)

장년 1~5부가 "성령님이 고통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주제로 지난 7월26~27일 이틀간 강원도 둔내에서 여름수련회를 가졌다.

일상의 케드에서 벗어나고 싶었고 항상 덜 채워진 듯 갈급한 심령 속에서 "주님 제가 지금 당신과 함께 있습니까?"하는 마음속의 질문이 나를 둘러싸고 있던 요즈음, 하나님께서 나를 어여뵈여 기시고 수련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셨다. 9시 차에 올라타 몇 년 전 삼척에서 개최되었던 전교인 가족수련회를 생각하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는 말씀 씀을 묵상하며 풍성한 은혜를 간구하였다.

이중운 목사님의 '오늘의 위기와 교회의 사명'이란 제목의 말씀을 들으며 박찬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무엇보다도 곤돌라를 타고 산 정상에 올라가 드린 새벽기도는 정말 잊을 수가 없다. 쌀쌀할 정도로 시원한 새벽바람 속에서 옷깃을 열고 통성으로 짝지어 드린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셨을 것이다. 또한 산에서 내려다본 아름다운 자연-피어나는 구름, 초록빛 들관, 숲-이 모든 것이 솔로몬의 영화보다도 더 귀하고 아름다웠다.

그리스도안에서 지체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눈 2일간의 짧은 일정을 아쉬워하면서 돌아오는 길은 우리모두 특히 나에게 많은 은혜를 주셔서 떠날 때 갖고있던 신앙의 의심과 회의를 모두 그곳에 벗어버리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나의 사랑 서울교회 영원하라"

김인수 집사(장년 2부 부장)

수련회 장 부근의 굽이굽이 돌아가는 산속길. 터질듯한 생명력을 과시하던 사방으로 무한정 뻗어나간 초록빛 초목들이 뻑뻑이 들어선 첩첩 산중에 위치한 콘도에 도착했을 때, 서로의 아름다운 모습에 매료되었다. 글로리아 찬양대가 인도하는 찬양은 우리를 단숨에 영혼의 깊은 골짜기로 데려갔고, 이어진 이중운 목사님의 개회예배 설교는 오늘날 영혼구원에 대한 관심부족으로 초래된 위기 속에서 성도가 감당해야 할 시대적 사명을 깨닫게 했으며, 부임과 동시에 수련회 준비에 여념이 없으셨던 이은식 목사님과 오경식 목사님의 특강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가치관과 정체성이 어떻게 성립되는 지에 대한 성찰을 하게 했고, 성령의 역사 원리, 성령을 충만하게 하는 방법,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에 대하여 간결하고 명쾌한 이해를 갖게 해 주셨다. 그룹을 지어 서로를 위해 기도했던 시간은 나와 나의 벽을 허무는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을 절절이 태우는 시간이었다. 늦은 밤 11시까지 계속된 고구마 전도와 김기동 집사의 간증테이프를 듣는 시간은 너무나 은혜스러웠고, 집사님의 결출한 코미디성 간증 때문에 단 1명도 조는 분이 없었다. 다음날 새벽 다섯시 십산 계곡.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산 정상으로 올라갔다. 와! 그곳은 정말 세상의 모든 곳이 아래로 뻗어 있는 하나님과 천사들이 나타날 것 같은 신천 신지였다. 새벽의 고요를 힘차게 가르느 이은식 목사님의 달란트 비유에 관한 설교는 우리의 봉사자세를 회개하게 하는 시간이었다.

수련회를 위해 기도와 봉사와 물질적 협조를 아끼지

않은 성도들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와 전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다른 은혜로운 간증적 체험들이 많이 있지만 지면의 제한 때문에 일일이 열거할 수 없어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이들 모두에게 이 기회를 통해 글로써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이들의 봉사, 후원, 사랑에 대하여 대신 갚아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한다. 수련회와 같은 모임에는 강사도 행사를 주관하는 자들도 중요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분들은 모임에 참석하는 분들이다. 참석자가 없이는 설교도 행사도 시설도 비용도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2002 장년부 수련회 참가자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수련회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와 오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는 바이다.

중·고등부 수련회를 다녀와서



오경식 (고등부)

내가 처음 가나안 농군학교란 말을 들었을 때 그곳이 어디인지 전혀 몰랐고 오히려 이름이 촌스런 가나안 농군학교라고 비웃으며 한편으로 특이한 곳이라 호기심과 기대를 잔뜩 갖고 떠났다.

그러나 우리가 도착한 그곳은 군대 같은 분위기였다. 얼 차려도 많이 받고 강당에 앉아 저녁 늦게 까지 말씀을 듣고 정말 뻑뻑하게 짜여진 일과를 보냈다. 그러나 강사목사님들의 설교를 귀기울여 들으며 많은 감동과 함께 눈물을 흘리며 우리가족과 이모 그리고 외국에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했다. 기도를 마치고 나는 몇 가지 다짐을 했다. 앞으로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고 음식을 대할 때마다 감사의 기도를 빠뜨리지 않고 하나님과 부모님 그리고 농사지는 모든 이들에게 감사하며 먹겠다. 매일 나와 가족을 위한 기도를 잊지 않겠다.

정혜윤(고등부)

처음 가나안 농군학교에 들어섰을 때 그곳은 나의 모든 생각과 너무나 다른 곳이었다. 새벽 일찍 일어나는 것부터 너무 힘이 들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많은 기도를 드릴 수도 있었고 친구들을 위한 중보기도 그리고 무엇보다 회개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서 좋았다. 하나님은 내게 이런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데 나는 짜증만 내고 불평만 하였음을 알게 되었고 감사하게 되었다. 또한 서울로 돌아가서도 적어도 일주일에 한번 이상은 어머니를 따라 꼭 새벽기도를 드리겠다고 다

짐했다.

송지훈(중등부)

도착하자 교훈으로 알도록 배우자 몸바쳐 일하자 겸손히 섬기자는 말이 눈에 들어왔다. 이곳의 교관선생님들은 바로 이 구호대로 우리의 머리 속에 근로하자 봉사하자 회생하자는 교육이념을 쫓쫓 넣어주셨다.

나는 깨달았다. 처음에 본 그 교훈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알도록 배우고 몸바쳐 일하며 겸손히 섬긴다는 말을 가지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이다. 나는 수련회에서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많이 힘들고 지쳤던 우리였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양식을 귀중히 여기게 되었다. 또 남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정신을 머리 속에 담았다.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고요한(중등부)

통성기도를 하면 어른들이 왜 이리 우는 지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목사님께서 정말 생각하기 싫은 과거-많은 방황과 갈등 어려움-를 가지고 계셨고 죽기를 각오하고 언덕에 올라 기도하셨다는 간증, 그리고 구원. 이 모든 것을 들을 때 기도하면서 흘리는 눈물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울면서 진정한 회개와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선생님들은 우리를 위해 함께 기도 해주셨습니다. 나는 무릎이 저리는 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마 모두가 다 그랬을 것입니다. 나의 고백은 '모든 죄를 사하여 주세요. 저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저는 믿음이 약한 어린양에 불과합니다. 저를 일으켜주세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 밖에 내 입에서 나오지 않았습다.

통성기도를 마친 후 근심과 고민이 사라지고 몸과 마음이 시원해졌다. 아마 이 기쁨은 강사 목사님이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를 드릴 때 느꼈던 그 기쁨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곳에 오게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을 따라 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길 다짐합니다.

동정

- 이중운목사는 8일(목)총회대학 위원회 주척 기독교 대학교수 논문현상공모 시상식에서 심사위원장으로 논문강평을 한다.
- 이사: 남일환 집사 · 송동선 집사(3교구)노원구 상계1동 상록수 아파트101-701 931-5734
- 개업: 박종만 · 이미경 집사(3교구) 하야미 (031)222-0507

☞ 금주의 식사제공 : 박정수 집사 · 김경옥 권사(6교구)
(장례를 은혜중에 마치고)

이중운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 극동방송(HLX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 인터넷방송 (· C3 TV -http://c3tv.co.kr
· 호산나넷 - http://hosanna.tv)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몽골 단기선교팀, 농촌 전도팀의 승리와 아시아 로잔대회 성공을 위하여
2. 여름철 무더위속에서 온 교회 성도들 영육간에 건강하도록
3. 병상에 있는 환자들, 실직자,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4. 국가의 안정과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위하여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예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 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교회약도 :

